

神學圖書와 圖書館奉仕의 課題

金 昌 宜

(長老會總會神學大學圖書館 司書長)

I. 宗教와 圖書

히랍의 神 큐리오는 兩面神이라 한다. 한 면의 모습은 우는 얼굴이요 다른 한면은 웃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도서 전시회야말로 韓國의 文化創造에 위대한 공헌을 남긴 「금속활자」의 「世界最初公認」이라 하겠다. 이는 물론, 우리 자체의 새로운 일은 아니다(오래전부터 국민학교 사회과 교재에도 高麗금속활자는 서양보다 200여년 앞섰다는 내용이 나온다).

「의인(義人) 가인의 핏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듯이」 出版文化의 歷史 자랑은 「심은대로 거두워진 썬이다.」 (詳定禮文이 아쉽지만),

밝아오는 東 窓에 커튼이 소용없듯이 우리의 出版文化는 世界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先人들이 세워놓은 문화공적, 이야말로 世界의 關心을 불러이르친 “책⁽¹⁾의 歷史의 歷史 資料는 世界最古 금속活字本인 直指心經”으로 印刷界에 王冠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우는 얼굴이 있다. 國內 圖書의 目錄界에 들어 있어야 할 「韓國古書目錄, 羅麗文籍誌 在佛韓國關係文獻目錄」 등에 일획의 언급이 없음은 先人들의 책임으로 돌려야하나, 아니면 圖書館人 혹은 學者들의 무능과 태만에서 온것일가. 우리는 이제라도 새로운 자각과 각성으로 文化創造와 傳達에 증진해야 하겠다. 1452~1456년에 출판된 중전의 최고 활자본으로 알려진 도서는 독일구베크르크의 「42行 聖書」로서 이는 누구나가 다 아는 基督教의 유일한 經典이다. 동시에 “⁽²⁾영국에 있어서 처음 출판의 창시자는 요한 카톤(John Caxton)으로서 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승원장이었다.” 이번의 전시회에 선을 보이고 보존되는 「直指心經」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하나 佛敎의 書籍인것 만은 확실하다. 또한 이미 잘 알고 있는 「高麗大藏經」도 護國佛心에 우러난 佛敎에 최대의 文化유산이라 하겠다.

宗教는 저마다 기본적인 經典이 있고, 宣敎를 위하

여 有形(활자를 통한 책자), 無形(전파를 이용한 방송 T.V. 테이프코드)의 매체(Media)가 동원된다. 여기에 전자는 대부분이 圖書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 예로 聖經만 하더라도 “⁽³⁾ 1970년의 세계통계를 보면 170, 344, 415권이 1, 431개 方言으로 출판되었다.” 「책중의 책」이란 말은 이점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으며 基督教야말로 出版文化와 圖書館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을 하고 발전해 왔다.

II. 基督教와 圖書館史

Hessel박사가 그의 도서관사(History of Library)에서 지적하듯이 “⁽⁴⁾敎會의 圖書館發展에 기여도는 막대하거나 초기부터 공적을 남긴 기관은 修道院圖書館”이라고 한다. 이는 초대교회에 파코미우스(Pachomius)의 修道院規則(the Monastic Rules)에도 지적하듯이 수도사를 위하여 책을 대출하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비잔틴 수도생활의 개혁자인 테오도러스(Abbot theodore of studium)는 모범적인 書藝學校(A Model School of Calligraphy)를 두고 많은 진지한 寫本들을 남기었다⁽⁵⁾.

閑暇는 精神의 大敵(idleness “the enemy of the soul”)이라고 여긴 저들은 매일의 日課를 기도, 노동, 독서로 일관되었다. 무엇보다도 修道院을 西洋文化의 溫床地로 만든 공적은 카시오도러스(Cassiodorus 487—583?) 이었는데 그는 테오도리쿠스 大王(theodoricus 456—526)에 봉사한 정치가이며 비바리움(Vivarium) 수도원을 창설하고 學問과 圖書館發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수도사들을 위하여 神學 및 世俗文獻總覽(Institutiones divinarium et saecularium litterarium)이라는 百科事典을 편찬하여 후세에 백과사전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다⁽⁶⁾.

특히 신학연구에 있어서 原典을 접하지 않고는 진정한 聖經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느낄때가 많다. 이럴때마다 문제점을 풀이해 주는 책이 있다면 이것은 콘콜란스(Concordance)인데 「성경의 몇구절에 어떠한 단어가 나타났는가를 제시해주는 책」으로서 「Concord-

ances of the vulgate」인데 이것은 파두아의 안토니(Antony of Padua)가 저술을 시작하였고 벌겐경(C. V)의 색인을 실제로 착수한 사람은 1230년에 「Hugo de Santo Caro」가 300~500명의 수도사(Monks)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것이다.

후고(Hugo) 주기경은 節單位로 구분하지 않고 各章을 동일하게 7부분으로 분류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다...⁽⁷⁾.

특히 「大學의 設立」⁽⁸⁾ 당시 圖書館界로 돌아보자면, 인쇄술이 발달치 못한 관계로 學問研究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1228년에 이태리의 벨첼리(velcelli)市 당국은 大學을 設立하는 동시에 學生들을 위하여 가능한 寫書生을 2人 두기로 大學당국과 約束을 한것으로서 짐작이 간다.

大學의 藏書로는 손본칼리지에 제일 장서가 많았는데 大圖書館(Magna Libraria)과 小圖書館(Parva Libraria)등 二部로 나누어 전자는 일반적으로 독서되는 책을 최고리로 매어 閱覽케 한것이요, 후자는 復本이던가 가격이 많지 않은 책을 포함하는 것인데 一定한 요금으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원래 책이 고귀하였으므로 많은 책이 유실 도난되었다. 그러나 당시 新本은 거의 大學教授들의 講議를 기본으로 삼은것으로 大學이 圖書의 中心地가 되는 동시에 대학도서관의 장서도 점차 증가되었다. 1322년 솔본도서관에는 1017권 1338년에는 1722권 그리고 그후에는 책 수도 증가되어 열람실 기타를 특별히 증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⁹⁾.

그러나, 한편 크로이랜드(Croyland)의 한 修道院에서는 1100년경 큰 화재로 인하여 파괴되었는데 당시 圖書館藏書로 700권의 책을 손실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그후 2~3세기 후에는 적어도 1~2천권이나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독일에 스포하임(Sponheim) 수도원도서관은 2천권을 소장하고 있었다⁽¹⁰⁾.

Ⅲ. 牧會者와 讀書效果

목회자를 우리는 대부분이 牧師, “⁽¹¹⁾講道師”, 傳道師 그리고 神學生과 같은 사람들을 牧會者 혹은 敎役者라고 할만한 분들이다.

목회자의 임무는 심방(교인의 가정방문, 상담)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강단을 지키며 說敎를 통하여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설교가 큰 짐이 되는 동시에 사명이라 하겠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분들은 1週에 4~5편의 說敎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물론 牧會者가 적은 이유도 되겠지만, 1편의 說敎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主日날 예배에는 40여페이지의 원고가 필요하고, 저녁예배에는 30페이지가 드는 셈이 된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資料는 대략 세가지로 나누

워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설교의 1차자료는 聖經(Bible)이다. 둘째는 기도와 체험신앙중에 얻어지는 靈感이요, 셋째는 Media를 통하여 얻어지는 知識이다. 여기에는 讀書로 습득되는 일체를 上記에 三合하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드러내며, 예배자로 하여금 무딘 心靈을 감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흠양할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려니와 信者로 하여금 계속되는 「生活의 禮拜」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본문 말씀을 경건히 연구하고 경의하는 심정으로 준비하여, 혹 歷史的 實例를 든다던지 常識的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거가 확실하고 결과가 양호할 것을 택해야 할 것이다. 聖經研究를 아니하고 說敎를 준비한다는 것은 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책을 읽지 아니하고 說敎를 준비한다는 것은 식은밥을 놓고 손님을 청하는 격이다.

Ⅳ. 韓國 神學圖書의 出版概觀

神學은 모든 學問들 중에서 책 저술에 多產的 수준에 돌입하고 있다. 1880년대에 新敎가 이땅에 전래된 이래 복음주의 문서는 韓國에서 基督敎를 증거하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되어 왔다. 「신교가 전래된지 5년후인 1899년에 종교서회가 조직되어 基督敎文書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즉, 1889년 10월에 몇 宣敎師가 貞洞의 언더우드 牧師宅에 모여서 협의한 결과 韓國聖敎書會(the Korean Tract Society)⁽¹²⁾라는 회사를 조직하려고 제반 준비를 끝낸 그 다음해인 1890년 6월 25일에 그 헌장이 통과되니 이것이 곧 현재 大韓基督敎書會의 母體가 탄생하였던 것이다⁽¹³⁾.

특별히 1954년 이후에 기독교 문서는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서목(韓國書目) 1954—1962(국립중앙도서관, 1964)에 기록된 圖書目錄을 보면 1945~1962년에 출판된 책은 모두 17,228권이다. 그중에 基督敎書籍은 1,365권 뿐이다.

출판된 총수와 기독교서적을 비교해보면, 기독교서적은 상당히 많은 비율(약 7~8%)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더 중요한 일은 佛敎와 儒敎와 기타 종교에 관한 서적들과 비교해 보는 것인데, 기독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에 관한 서적들은 겨우 176권 뿐이었다. 기독교서적은 한국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서적을 합친것보다 거의 1,000권이상이나 많이 출판되었다. 여기서 기독교서적 1,365권 중에서 497권은 西歐著者의 번역도서이고, 863권은 韓國人의 著述로서 1945~1962년⁽¹⁴⁾의 韓國書目中서 67%를 차지하는 셈이 된다.

이곳에 基督敎書籍 出版社는 139개인데 그중에 가장 큰 출판사로서 가장 많은 책을 낸곳은 基督敎書會이며

139개 중에서 크기의 순서를 보면 다음에 10개를 헤아릴 수 있다.

1. 기독교교회—384권
2. 가톨릭출판사—125권
3. 기독교 교육협회—94권
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79권
5.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교육국—53권
6. 대한기독교 제명협회—45권
7. 경향잡지사—43권
8. 시조사—40권
9. 생명의 말씀사(탐 선교부)—24권
10. 대한 성서공회—22권

기독교교회와 기독교 출판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며, 사실상 신교의 출판사 가운데서 경쟁할 출판사는 없다. 139개의 출판사중 99출판사는 모두 17년 동안에 3권이상의 책을 출판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V. 神學大學 圖書館의 當面 課題

한국기독교의 발전과정은 100년의 연륜을 쌓았다. 동시에 敎界에 일할 수 있는 일군을 養成함은 필수的大課業이요, 그리스도께서 人間에게 준 地上命令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神學敎育機關은 牧會者와 神學者를 배출하기 위하여 “(15)아세아와 남태평양 지역에 만도 400개의 神學校가 있으며, 그중에 韓國에 만도 군소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이 68개가 있는데 年平均 5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수년전만 하드래도 늘어나는 敎會와 信仰人口의 증가로 神學生의 敎育은 속성과가 되었으나, 해방이후 4반세기를 넘어서는 우리의 神學敎育界도 점차 발전을 위한 敎育改革論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社會發展과 문화적도가 높을 수록 敎會의 指導者는 社會의 깊은 學問위에 靈力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학문이 세분화 될 수록 좀더 다양한 커리큘럼이 요구되고 敎育環境도 양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 역사안에서 가장 뜻있는 변화의 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사회와 産業의 형편들, 오늘의 非基督敎世界를 새로이 알아보는 것, 人類歷史를 광범하게 펼쳐서 철저히 더 아는 것과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宇宙의 힘의 신비를 약속해두는 새로운 科學은 基督敎歷史의 새로운 한 課題를 수반했다.

이리하여 기독교 역사는 그 자체가 한부분이 되어있는 전 역사로부터 고립하여 공부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역사적 비평의 과정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

든것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圖書館奉仕를 해야할 것이며, 우리앞에 부닥친 當面課題는 무엇일까? 中世大學設立에 대한 基督敎 敎育機關의 공헌은 자다가 認定함 이요. 韓國敎育의 發展도 새로운 제도와 文物을 수입할 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의 神學大學 圖書館界」를 살펴볼 때에 우리의 落後를 어떻게 탈피할 것이며 어떠한 課題의 解決로 알찬 實効를 거둘 것인가? 적은 경험에서나마 얻은 소견을 피력코자 한다.

(1) 神學司書의 專門性 要望

학문제열에 있어서 神學의 위치가 높거니와 神學의 기반위에 선 圖書館職의 전문직이 필요하다. 神學敎育은 7년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위에 圖書館學 敎育을 받아야 神學圖書 감당에 무난하다. 「일반학문은 뇌(머리)로 쓰는 학문이라면 神學은 마음, 靈의 世界的 학문이 따르기 때문에…」 더구나 神學參考司書는, 聖經에 舊約의 原典이 히브리어이고, 新約이 헬라어이기때문에 고도의 해박한 학식이 필요하다.

(2) 神學書誌 作業이 시급하다

일반대학에서는 주로 D.D.C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학교서들의 분류에는 너무나 세분된 학문을 200(201~299) 단위 만을 사용하기에는 여러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제도를 사용하고 있다.(여기에 관해서는 차후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

중대한 작업의 하나는 各 圖書館 自體의 神學圖書藏書目録作成이다. 이는 司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의 제한으로 많은 시일이 요구될듯...

그리고 다른 「대학도서관이나 (16)국·공립 도서관에 목록에는 많은 수의 神學圖書가 수록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의 神學圖書에서 하루속히 神學綜合目録이 나오야 할것이다」.

(3) 相互貸借制 必要

이것은 綜合目録이 完成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교과와 신앙노선의 분리로 연구자료등을 교환하기에 우려하는 일부가 있어, 학문 연구상 장애가 되는 점도 없지않다.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敎會政治나 한계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과 혹은 그 대학의 특성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것이며 研究資料에 있어서는 宗派(基督敎, 佛敎, 儒敎…), 敎派(長老敎, 監理敎, 聖潔敎…), 路線(保守, 自由), 사이 비종파 등 「비교종교학」이 교과과정에 있는한 각 분야의 폭넓은 資料를 소장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4) 韓國敎會史籍 文獻蒐集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비록 짧은것이나 놀라운 발

전을 본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열정적인 信心은 아세아뿐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게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資料들을 수집하여 우리 후배들의 연구에 도움을 줄뿐더러 世界學者들이 우리 도서관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했습니다. “(15)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라면 회귀본은 도서관의 심장이다”

(5) 圖書館學講座 設置要望

大學教育은 最高의 學問研究機關이다. 大學生은 敎授의 講議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는 自學自習의 能力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시설 좋은 圖書館이 있어도 圖書館利用方法에 未熟함을 절감하여 새로운 대책이 요청된다. 고등교육중에 大學院에서는 論文指導를 위하여 書誌學 혹은 논문지도법을 학점에 넣고있다.

外國에서는 이미 大學敎科에서 敎育시키고 있음은 아는 사실인 즉 재학생이 많지 않은 우리 神學界에서 시도하여 圖書館中心의 敎育을 해보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의 뒤에는 많은 敎會의 圖書館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강습과 敎育이 필요한 것이나 한 단위의 大學에만 머물어 있을 것이 아니오 사회적 관심속에서 神學專門圖書館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오늘날 敎界나 學界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1972. 5. 31 중앙일보 1972. 5. 29.
 (2) Good, H.G.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50, p. 70.
 (3)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한 통계로서 한국의 출판 현황은 1970년에 4,488,394권이 있으며 1971년도에는 5,005,100권이 되었다.
 (4) 金昌宜, 中世修道院制度史, 景仁文化社. 1969 p. 249.
 (5) Good, H.G. *op. cit.*, p. 69. 金昌宜, 上揭書. p. 249.
 (6) 上揭書 p. 250.
 (7) Danker, Frederick W. *Multipurpose Tools For Bible Study*. Concordia Publ. House, 1966. pp. 1~2 1250~52년에 세명의 영국 도미니칸(Dominicans) 프랑수와, 파스칼, 뒤리퐁(Franc,ois, Pascal, Dutripon) |

(21면의 계속)

「타임즈」는 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참고자료집서——약 45,000권의 참고도서와 600종의 추차간행물——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집서에 대한 목록은 파일에 정리되어 들어가야하리라 본다. 그렇게 했을 때 멀지 않은 장래에는 터미널에 있는 컴퓨터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이고, 컴퓨터는 이를 직접 처리해서 초록 (abstract), 완전한 원문과 원

Concordantiae bibiorum Sacrorum vulgatae editionis (Paris, 1838), 7th ed. (1880)에 이르러 별경의 배용을 일반적으로 알기쉽게 하려는 초기 노력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8) 中世時代는 西로마의 멸망 476년에서 문에부흥이전 東로마제국이 몰락한 1453년으로 그러니까 약, 기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인 1천년간을 보는것이 통예이다. 다시 세분하자면 중세전기를 11세기까지로, 중세후기를 11세기이후로 나누는데 후기에는 都市의 發達과 大學의 設立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9) Schachner, N. *the Mediaeval Universities*, London 1908. pp. 327—8. 金昌宜, 讀書와 圖書館②(韓國福音新報), 1969. 10. 통간 438호.
 (10) Good, H.G. *op. cit.*, p. 70.
 (11) 교과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강도사 제도는 주로 장로교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그해(1년 1회)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자를 말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전에 불리워진다. 장로회 총회 신학대학(합동측=사당동소제)와 장로회 신학대학(통합측=광장동소제)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수업년한은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3년간 신학을 연구하므로 7년이 소요되고 있다. 기타의 다른 신학대학은 4년 혹은 3년제이다.
 (12) 이후에 본 書명칭은 여러번 바꾸어졌다. 즉 1911년에 傳道書類會社(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등 현재까지 6번 변경됨. 大韓基督教敎會略史 pp.49 69.
 (13) 1927년에 만도 기독교서회는 43권의 新刊이나왔다 The Korea Missions Year Book 1928 p. 146
 (14) 金春培, 大韓基督教敎會略史. 1960. pp. 47. 49
 (15) Ro Bong Rin *Theological Assistance Program* Singapore 6th August, 1971. 기독교연감 1970.
 (16) 국립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해방이전도서)에도 불과 30여종 밖에는 없으며 「Label에도 기타 종교」로 표시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필자가 조사한 것만도 해방이전의 기독교 서적은 300여종에 달한다.)
 (17) “If the Library is the heart of the University, the Rare book area is the heart of the Library.” 이말은 템플대학(Temple Uni.)의 C. Waller Barrett씨가 1백만권을 收書하는 기념식 석상에서 한 말이다. St.Marks Library of the General theological Seminary. New Book List. New York. 1971. p. 1

문에 대한 참조 (full text and full text reference), 그림, 각종 형태의 삽도는 물론 「타임즈」社의 도서관 서가에 있는 연관된 자료까지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타임즈」社가 약 6년전에 착수한 「정보은행이 완전히 가동할 때의 운영 상황이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이러한 시시스템에 투입되어 왔으며, 바로 이 순간은 우리들이 중요한 이정표를 막 지나가려 는 찰나에 있다.